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 (2) 지리학 분야별 지역 연구 동향과 과제*

최 병 두**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 (2) Trends and Issues of Regional Research in Major Subfields*

Choi, Byung-Doo**

요약 :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의 발달 배경 및 종합적 연구 동향에 관한 앞선 논문에 이어서, 인문지리학의 주요 전공분야들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지역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장소와 경관에 관한 역사문화지리학, 산업지구(또는 클러스터)에 관한 경제지리학, 도시 네트워크와 분화에 관한 도시(사회)지리학에서 지역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전공분야들에서 연구자들은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 각기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과정과 관련시키고, 본질적 실체이지만 또한 담론적 구성물로 이해하며, 영역성보다는 네트워크나 관계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기존의 전통적 지역연구에서 벗어나 신지역지리학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역 연구에서 지역의 개념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특수성/보편성, 실체성/구성물, 그리고 영역성/관계성의 이분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주요 이슈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적 종합, 지역 내·외적 관계로서 지역불균등발전, 그리고 대안적 지역 만들기 등이 제시된다.

주요어 : 신지역지리학, 지역연구, 지역의 특수성/보편성, 실체성/구성물, 영역성/관계성

Abstract : This paper is to consider trends and issues of regional research in major sub-fields of human geography in Korea, following the previous one which dealt with contexts and general trends of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since the 2000s. They include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on place and landscape, economic geography on industrial districts or agglomerated regions (i.e. clusters) and urban (and social) geography on urban networks and differentiation. Even though researchers in sub-fields have used different terms and concepts to identify region, they are in common to relate specificities of region to general processes such as (de)modernization,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to understand region as social and discursive constitution as well as substantive reality, and to give more attention to socio-spatial networks and relationality than territoriality of regions. These common points seem to reflect the emerging trend of new regional geography, and to get rid of existing traditional concept of region. It is suggested that major tasks for conceptualization of region in future research are to overcome dichotomy of speciality and generality, of substantive reality and discursive constitution, and of territoriality and relationality, and that important issues for empirical research on region include regional synthesis from new perspectives,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s relational process in and between regions, and producing practice for alternative regions

Key Words : new regional geography, regional research, speciality/generality of region, substance/constitution, territoriality and relationality.

1. 서론

최근 지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 지역(공간, 장소, 도시, 로컬리티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과 교통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전개되는 경제·정치적 재편과 사회·문화적 변화가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지역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은 새

* 이 논문은 2014년 지리학대회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지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 최근 국내 지리학에서 지역연구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원고의 후반부를 수정한 것이다. 이 원고의 전반부는 최병두(2014)에서 발표되었다.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bdchoi@daegu.ac.kr)

로운 경관과 장소성 또는 정체성을 가지거나,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혁신지구 또는 산업집적지로 변모하거나 (또는 반대로 쇠퇴·침체지역으로 전락하거나), 변화한 도시체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공간적 관계로 재편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리학의 연구 대상은 물론 지역이지만, 특히 지리학에서 지역 연구가 재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이른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는 주로 거시적 사회이론이나 보편적 관점에서 제시된 연구방법론에 머물러 있고, 실제 ‘신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신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 자체의 한계, 즉 경험적 연구들과는 괴리된 거시적 이론들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신)지역지리학의 개념에 함의된 ‘종합적’ 연구, 즉 한 지역 내 모든 측면 또는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해야한다는 지역지리학의 방법론에 내재된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리학 내 분야별 연구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개념이나 이론들을 원용하면서도 공통된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지역지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각 분야별 지역 연구는 법칙추구적인 ‘계통적’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각 분야들에 걸친 계통적 연구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계통적 연구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신지역지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최병두, 2014), 지리학의 분야별 지역 연구도 지역지리학의 연구 성과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학의 각 분야별 지역 연구의 동향에 대한 고찰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고찰은 각 분야별로 지역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론이나 이론들이 원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에서 문제는 각 분야별로 지역의 개념을 달리 설정하면서, ‘지역’이라는 용어 대신 ‘장소’, ‘도시’, ‘지구’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분야별 지역 연구에서 설정된 스케일은 상당히 다르다. 즉, 지역의

규모는 개별 시설(예로 명동성당)이나 소규모 마을(예, ‘104마을’ 등)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이나 신산업지구 또는 도시 전체나 도시권, 나아가 국가나 국경을 가로지르는 국제적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¹⁾ 그러나 신지역지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은 일정한 경계와 고정된 스케일의 ‘영역’이라기보다 다규모성(즉 다중 스케일)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될 전공 분야별 지역 연구는 대체로 국가하위 단위이지만 다양한 스케일에서 수행된 경험적 지역 연구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전에 관한 논의의 일부로, 2000년대 이후 지리학 내 주요 전공분야들에서 수행해 온 지역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종합하여 지역연구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의에 포함된 지리학의 주요 분야는 역사문화지리학, 경제지리학, 도시(사회)지리학이다. 이 논문은 다음 절들에서 차례로 이 분야들에서 발표된 지역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역 개념의 주요 특성들을 논의한 후, 앞으로 지리학에서 지역 연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문화적 장소와 경관으로서 지역: 역사문화지리학에서 지역연구

지역은 인문지리학의 기본 연구 대상이지만, 특히 장소라는 개념으로 역사문화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더불어 역사문화지리학자들도 문화적 장소로서 지역을 거시적인 지구화 과정과 관련시켜 연구하는 경향이 생겼다. 예로 정치영(2007)은 지구화가 문화지리학 분야에서도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즉 지구화가 진행되면 지역 간 등질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실제 지구적 통합과정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독특한 지역문화가 복원 또는 재구성되도록 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역사문화지리학적 연구는 이와 같은 지구화과정뿐만 아니라 그 동안 근대화와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지역 특성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역사문

화지리학적 연구는 신지역지리학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도입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로 홍금수(2007)는 강경과 논산을 사례로, 전 근대적 지방제도의 요체이며 주로 군소 하천 유역의 등질지역으로 장소 담론의 범역에 상응했던 행정구역이 정치적 격변기인 조선시대 말 개화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적 지역구조로 이행하게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즉 이 연구는 등질지역이며 장소적 특성을 가졌던 행정구역으로서 지역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계층적으로 재편된 근대도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지역은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지리적 단위이며, 유·무형의 다차원 스케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에 바탕을 두고 지역 변화를 고찰한 조성욱(2006)의 연구와 비교된다. 양 연구는 모두 행정구역으로서 지역을 중심기능의 도달구역인 동시에 장소 담론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홍금수(2007)의 경우 행정도시는 권력과 자본의 정치경제적 연합에 의해 지역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편, 조성욱(2006)에서는 이러한 행정도시가 신작로와 철도역의 개설, 일본인의 농장 개설과 면사무소 및 정기시장의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된다. 다른 한편, 전중환(2011)은 경기만의 해로, 포구 분포, 그리고 이들의 결합에 의한 포구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었던 지역화 과정을 포착하고자 했다. 특히 그의 연구는 “포구와 장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지역화 과정의 구체적 양태를” 고찰함으로써 폐쇄된 지역이 아니라 연계성을 통해 형성·변화하는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신지역지리학에서 강조되는 새로운 공간적 개념들, 예로 다차원적 스케일이나 상호관계성 또는 네트워크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홍금수(2007, 91)에 의하면, 지역은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지리적 단위로서 다차원의 스케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지역의 개념은 국가 영역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 간 영역의 질곡으로 상징되던 국가라는 경직된 경계를 초월해 이제는 지역, 공간, 장소의 다양한 전선

에서 전개되는 갈등과 저항의 역동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 지평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전중환(2011, 91)은 개별 지역이 아니라 지역 간 관계의 차원에서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개념이 필요하며, 지역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지역의 특성이 형성·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는 그러나 정교한 지역 개념의 재구성보다는 행정도시 지위 획득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에 초점을 두거나, 수륙 교통의 결절로서 포구와 그 네트워크의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지역 변화에 관한 이러한 역사문화지리적 연구는 3가지 유형의 상호 관련된 지역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최병두(2002; 2012b), 홍금수(2009) 등에서 강조된 것처럼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또는 경관과 기억을 통한 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최병두(2002)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생활공간에서 체계공간이 분화됨에 따라, 전통적 지역 즉 장소(성)는 사라지게 된 반면, 새로운 장소들이 ‘의사적’으로 복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적 장소성은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론적 안전감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장소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홍금수(2009)는 경관을 지역 연구를 위한 중요한 소재로 설정하고, 경관과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집단적 기억과 관련시켜서 사회적 유대감과 장소 정체성의 형성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최병두(2012b)는 이러한 경관과 장소, 기억 간 관계에 바탕을 두고 최근 도시 재개발(재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홍금수 외(2012)는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 중계본동에 위치한 ‘104마을’이 신자유주의적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떻게 서민경관이 파괴·소멸되고 있는가를 탐구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본주의화 또는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장소나 경관의 소멸 및 복원 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을 개념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 정희선(2004)은 명동성당을 사례로 종교 공간의 장소성과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고찰한다. 또한 정희선(2009)은 한국의 스포츠 산실로서의 상징성

과 문화역사성을 가진 동대문운동장이 어떻게 철거되고 디자인·패션 중심 관광클러스터로 재개발되는가, 즉 자본주의 경관 재구조화의 이면에 담겨진 의미를 분석한다. 그뿐 아니라 정희선(2012)은 근대 문화의 도입과 산업화의 상징성을 안고 있는 당인리 발전소의 이전 또는 재건립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장소 상실 혹은 무장소성이 어떻게 형성·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소로서 특정한 지역의 변화 과정을 이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 자본 축적 과정, 또는 정치적 갈등 등과 관련시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다.

또한 송희은(2007)은 창경궁을 사례로 식민통치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배 권력이 어떻게 상징적 경관을 만들고 자연화/탈자연화하고자 했는가, 즉 사회적 재구성하고자 했는가를 고찰한다. 전중환(2009)은 서울 종로 이면 도로인 ‘피맛길’의 역사지리를 통해 그 기원과 경관을 추적하고 장소기억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그 장소성을 서발턴/탈주의 공간, 망각/회상과 생성의 공간, 화석/삶의 공간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서술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중환(2013)은 서울의 충무로와 명동 일대를 사례로 도시 ‘본정통’이라는 장소에 쌓인 기억의 다층성을 식민권력의 상징 대 근대의 표상, 금융자본주의의 심장 대 문화 예술인의 마당, 유행의 공간 대 정체성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지역의 근대화(또는 탈근대화)과정에 따른 변화의 서술이라기보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거나 그 과정에 내재된 자본주의화 또는 (탈)식민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역지리 연구를 훨씬 능가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지역은 기존의 장소적 특성과 새로운 사회공간적 힘이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장으로 이해된다.

역사문화지리학에서 이러한 장소(성)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두 번째 유형의 연구, 즉 더욱 명시적으로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어진다. 예로, 홍금수(2004)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을 거쳐 탄생한 안성군과 현재의 안성시를 동질성을 가진 단일 실체로 보기보다는 내적으로 분절된 정체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통합이후 안성의 지역 지리를 공간과 장소의 대립”, 즉 “기하학적이고 추상적 원리에 입각해 지표상에 질서를 지우려는 공간의 도전과 역사와 문화의 전통으로 무장한 장소의 대응” 간 긴장으로 이해하였다(홍금수, 2004, 210). 지역 정체성의 변화는 외적 영향에 대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역 내적으로 경관 복원이나 이미지 만들기 등을 통해 추동되기도 한다. 예로 진중헌·신성희(2006)는 인천시의 ‘만국공원’(현 지유공원) 복원을 사례로 국제성과 다문화 공존성 등을 드러내는 도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과거’의 선택적 복원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영민(1999)은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고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지역신문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임병조(2009)는 흥성신문에 투영된 ‘내포’지역 만들기를 살펴보면, 지역신문은 지역의 구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조일환(2013)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기억되는 화성시의 부정적 지역 이미지가 영화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본 후, 동탄 신도시 주민들이 이러한 부정적 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적 의미가 양립하는 지역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지역은 물리적으로 주어진 실체라기보다 제도적 및 일상적 담론과 실천에 의해 (재)구성되는 이미지 또는 고안물로 이해된다. 예로, 인천의 만국공원은 지역 엘리트에 의해 ‘기억할 만한 과거’의 장소로 선정되어, 그 “이미지는 지역 담론이 지배하는 상상의 공간이자, 재현의 공간”으로 선택적으로 복원된다고 주장된다(진중헌·신성희, 2006, 241). 또한 임병조(2009)에서는 “지역정체성은 [지역 언론에 의한]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곧 지역의 구성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화성 동탄의 신도시 이미지는 한편으로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로 인해 부정적으로 재현되지만, 또한 동시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장소로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답사나 탐방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소기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조일환, 2013).

지역정체성에 초점을 둔 지역 연구는 다시 세 번째 측면, 즉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장소마케팅의 의의와 한계로 이어진다. 선진국의 도시전략이 관리주의에서 기업가주의로 이행하면서 장소마케팅은 새로운 도시문화전략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장소마케팅의 효과는 사회집단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며, 결국 ‘장소의 정치’의 결과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주장된다(구동희, 2004). 즉 지구-지방화에 따른 지역들 간 경쟁 심화가 장소마케팅을 촉진했으며, 도시 및 지역개발의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하게 되었다(이희연, 2005). 이러한 장소마케팅은 경관계획과 접목되거나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해 촉진될 수 있지만, 진정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 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최병두, 2005). 장소브랜딩의 개념은 이러한 장소마케팅의 진화된 한 형태로서, 연성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이정훈, 2008).

장소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의 일부는 지역축제에 주목한다. 지역축제는 대부분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장소성에 기반을 둔 장소마케팅을 목적으로 한다. 예로, 김숙진(1999)은 고양시에 특화된 화훼산업이 ‘꽃 박람회’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을 활성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지역 문화의 복원이나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 장소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고유한 장소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인위적으로 고양시키기도 한다. 예로, 백선혜(2004)는 미국의 일부 도시와 더불어 경남 통영시를 사례로 실제 이 지역의 장소성과 상관없는 요소를 도입하여 장소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고찰한다. 또 다른 예로 종로지역을 사례로 문화공간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방안(이은숙 외, 2007), 전주 지역의 음악축제를 사례로 비공간적 문화자원이 특정 장소나 지역과 결합하여 ‘축제’를 매개로 경쟁력 있는 지역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연구되기도 했다(신성희,

2013).

이러한 장소마케팅 전략이 도시나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또는 파괴를 초래할 것인가의 여부는 논란거리였다. 이무용(2009)은 장소마케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접하거나 기능의 유사성 또는 보완성을 가진 지역들 간 연계하여 공동으로, 즉 ‘지역믹스’를 통해 장소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반면, 박배균(2010)은 장소마케팅이 복잡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장소를 자본이나 권력을 통해 영역화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진종현(2012)은 관광지역이었던 태백시 철암을 사례로 산업유산경관의 관광자원화를 둘러싼 진정성과 심미적 가치를 고찰하면서, 문화유산 개념을 ‘전통-현대’의 이분법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소마케팅 전략이 도시나 지역의 문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영역적 자산의 복원 또는 (재)구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역사문화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에 관한 연구는 근대화(도시화와 산업화) 및 탈근대화(지구화, 탈산업화)과정에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신지역지리학 및 사회공간이론에서 제시된 스케일, 네트워크 등 새로운 용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동향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은 장소와 같은 전통적 용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의미들(예로 기억, 이미지, 정체성, 담론, 브랜드 등)과 관련시켜 고찰된다. 여기서 지역은 더 이상 정태적이거나 주어진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역사에서 기존의 장소적 특성과 외적 영향이 서로 충돌하는 무대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객관적 실체이며 또한 상징적으로 (재)형성되는 구성체로 이해된다. 이 분야에서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몇 가지 다소 다른 갈래들(특히 장소와 경관, 장소정체성, 장소판매 등)로 구분되지만, 지역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사람들의 개인적 및 집단적 이미지와 실천을 통해 구축되는 물질적 및 담론적 구성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3. 산업지구(또는 클러스터)로서 지역: 경제지리학에서 지역연구

경제지리학은 인문지리학의 다른 전공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계통적 접근을 전제로 하지만, 전통적 방법의 연장선 상에서 지역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예로, 손용택(2004)은 수도권 농촌지역인 여주가 고속도로의 통과로 유발된 토지이용 및 생활실태와 생활공간의 입지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이 지역의 경제지리적 변화를 고찰했다. 이철우·박민정(2009)은 소규모 변경지역인 거문도를 사례로 새로운 어업기술과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변화를 어업 유형(자급형에서 상업형으로)의 전환과 증가한 어획물 처리를 위한 제도와 설비 확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산업이 아니라 최근 발달한 산업들, 예로 자동차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지역적 특성이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도 단위 지역을 전제로 분석되기도 한다. 예로, 문남철(2004)은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입지와 지역산업 실태를 고찰하면서, 부품산업의 지역적 기반 없이 완성차 업체가 입지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 분업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류주현(2005)은 사업서비스업의 특징과 성장과정을 국가 및 서울시 차원에서 공간적 불균등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자동차산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을 연구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적용한 개념이나 분석 기법은 관계적 측면보다는 전통적 의미에서 한정된 지역의 개념이나 공간 분포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경제지리학 분야의 주요 지역 연구는 대부분 지역혁신이나 지리적 집적과 이에 따른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들에서 집적지 또는 클러스터로 지칭되는 지역은 개방된 장소성과 내외적으로 연계되고 다규모화된 공간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역혁신이론이나 산업집적론(또는 클러스터이론)에 바탕을 둔다. 예로, 이종호(2003)는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 특히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학습의 인지적 과정을 밝혀내고 이것이 지역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고찰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지역산업의 집적 혹은 지역혁신 관련 연구들은 크게 증가했고,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로, 이종호·이철우(2008)는 집적지 혹은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적지 유형 구분과 관련 이론들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는 이러한 이론들을 직접 따르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 사례로, 한주성(2001)은 지역혁신 또는 클러스터 이론에 바탕을 두기보다 매시(Massey)가 제시한 로컬리티의 개념과 신지역지리의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는 지역(조직체)을 “다양한 외부적 자극과 환경에 대하여 내적 구성요소가 반응하고 변화하는 동적인 실체”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의 노동시장 특성과 공간적 네트워크를 고찰했다. 다른 한편 정준호(2006)는 안산지역을 사례로 지역의 자원이 기업 전략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유형화하고, 지역 기업의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발전의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제도학과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역혁신이나 산업집적보다 ‘경로의존성’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단위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경로와 기업전략을 고찰한다.

그러나 경제지리학에서 경험적 지역 연구의 주류는 지역혁신과 산업집적 또는 클러스터 이론 및 관련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개념들은 2000년대 중반 정부의 국토 및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여러 지역들의 산업 및 기업 여건이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에 원용되었다. 이철우(2013)는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산업집적지의 형성 요인(자연발생형/신산업지구형)과 존립 형태 연구, 산업집적지의 존립 메커니즘(주체 간 상호작용/경쟁력 강화) 연구, 산업집적지 정책 연구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대부분 연구들이 존립 형태와 존립 메커니즘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모호한 유형화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이 유형 분류에 근거를 두면서도

산업집적지(클러스터)를 ‘지역’의 개념과 ‘신지역지리학’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기 위해, 산업집적지의 형성과정 연구, 산업집적지의 내·외적 관계(즉 네트워크 등) 연구, 산업집적지의 혁신환경(학습과 사회적 자본 등) 연구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유형, 즉 산업집적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시 세분하여 ‘자연발생적’ 집적지와 신산업지구형 집적지에 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 유형의 연구는 비교적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예로 박래현(2005)은 서울시 성수동의 제화산업 집적지의 형성요인과 집적 형태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으며, 이철우(2011)는 1990년대 이후 형성된 대구시 수제화 집적지구를 사례로 대도시 도심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과정과 존립기반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 산업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적지들을 고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산업(또는 혁신산업, 벤처산업 등)으로 불리는 업종들의 집적지들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주어진 지역의 영역성보다는 밀집에 따른 장소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연계효과를 전제로 한다.

신산업지구형 집적지는 자연발생적 집적지와는 달리,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이나 기존 산업단지의 재편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로, 이철우·이종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창원기계산업지구는 1990년대 이후 내생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네오포드주의적 내포적 축적기반을 강화하게 되었고 교육 및 연구기반 기능 재편 등 제도적 환경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밀집은 미약하여 혁신의 잠재력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창원의 신산업지구는 일단 외생적 정책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점차 내생적 기반을 갖추면서 중소기업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황주성(2004)의 연구도 대덕 IT 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면서, 이 산업집적지가 2000년대 이후 더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임영훈·박삼욱(2006)은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면서, 국가정책과 지자체의 전략이 광산업 초기 집적에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일단 형성된 집적지는 네트워크 환경, 생

산가치사슬 상 기업 간 거래, 지식 및 기술의 외부성이라는 입지요인에 기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창원, 대덕, 광주 등에서 발달한 산업집적지들은 공통적으로 내생적 요인들과 더불어 외적 정책을 매개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내생적 요인들은 단순히 지역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 주체들(기업들과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킹과 공동학습 등 혁신 역량의 강화를 통해 구축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내적 주체들에 초점을 두고 산업단지의 재편 과정에 관한 연구 사례로, 구양미(2002)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전환한 구로공단을 사례로 산업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지의 변화과정과 이 과정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즉, 구로공단에 신규 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은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고도화, 지역의 기술개발력 향상과 혁신성 증대, 기업 간 연계와 협력 증진, 기존업체 이전유도와 토지이용 고도화에 기여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구조 재편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기술집약 중소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증가시키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식기반 클러스터로 진화하는데 기여하였다(구양미, 2012). 이 연구들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기존 산업단지 지역이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는 보여주는 연구사례이다.

둘째 유형의 연구는 산업집적지 내 주체들 간 관계에 관한 연구로 흔히 네트워크 또는 연계성에 초점을 둔다. 이철우·이종호(2000)는 사례지역인 창원 산업지구의 신산업집적지가 적기생산(JIT)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생산 공정의 외부화, 거래의 다변화를 통한 공급기업 간 네트워크, R&D 네트워크, 창업 및 분리신설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관계 등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뿌리내림을 통해 발전했음을 밝혔다. 권오혁 외(2005)는 부산의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면서, 물적 연계, 노동력 연계, 그리고 기술정보 연계 등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낮은 기술 경쟁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술선도기업의 지역 내 유치와 이들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한다. 백영기(2006)는 혁신주체 간의 협력과 신뢰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상호학

습과정에서 공간적 인접성의 효과 등에 초점을 두고 전북의 혁신환경을 검토하였다. 이정협(2008)은 울산의 자동차 클러스터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하여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다규모적(즉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공간 특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들은 모두 산업집적지 또는 클러스터에서 내외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산업집적지 내 주체들 간 관계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 내 네트워크나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기여하지만 정태적 접근이라고 비판되며, 또한 주체들 간 관계와 이를 통해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혁신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이철우, 2013).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혁신) 생태계의 개념이 도입된다. 예로, 이철우·이종호(2004)는 대구지역을 사례로 벤처생태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조성이나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의 집적도 필요하지만 이들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의 구축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의 연구는 주체들과 혁신환경 간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기술혁신은 산·학·관 3주체의 삼중나선형의 상호 호혜적 작동을 통해서 창출되며, 이러한 작동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기관과 제도는 3주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주체 간 작동에 피드백된다(이철우 외, 2010).

연계성 분석을 위해 제시된 또 다른 개념은 ‘상품·가치사슬’이다. 이 개념은 기업이 상품의 개발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는 단계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연계성을 의미하며, 네트워크의 개념과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최정수(2006)는 경북 문화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가치사슬 내 활동을 통한 혁신창출 메커니즘에 바탕을 둔 문화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박경숙·이철우(2007; 2010)는 대구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체계와 경영 특성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변화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장미화·한주성(2009)은 원예작물로서 수출상품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음성군지역의 접목선인장을 대

상으로 글로벌 상품사슬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경진(2011)은 기존의 기업 네트워크 분석방법과 가치사슬의 개념을 통합하는 연구들에 바탕을 두고 순창 장류산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지역은 내적으로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 관계(네트워크와 연계성)로 이해된다. 이러한 주체들 간 연계성은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지역적으로 착근하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초기 연구들은 이러한 관계를 정적이고 수평적인 것으로 이해한 반면,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 가변적이고 입체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벤처생태계, 삼중나선형(트리플 헬릭스)모형, 상품사슬 또는 가치사슬 등의 개념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특정 업종의 집적지역은 일정한 장소적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스케일화된 네트워크로 분석되는 클러스터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지역 연구들은 첨단기술산업이나 문화산업과 같은 신산업 부문들뿐만 아니라 원예산업이나 장류산업과 같은 전통적 업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도 포함한다.

세 번째 유형의 연구는 산업집적지의 혁신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 예로 (공동)학습, 학습지역, 사회적 자본 등에 바탕을 둔 경험적 연구이다. 예로, 김광선(2000)은 동대문시장 지역을 사례로 학습지역의 개념을 원용하여, 학습과 혁신을 강화하는 지역화된 능력의 구축이 지역경제의 재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학습지역화는 주체들 간 암묵적 지식을 공유하는 역동적인 학습과정과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다. 남기범(2003)은 이러한 동대문시장과 서울 벤처밸리를 비교 연구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의 특성과 국지적 공간경제 및 산업의 차이에 따른 제도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남기범(2005)은 ‘지역산업군집’으로서 대전 생물벤처산업과 부천조립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성숙산업지역의 클러스터와 첨단산업지역의 클러스터의 특성들을 비교하고, 이들에 따라 차별적인 지역내, 지역간 연계 방안 및 기업지원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두 가지 유형의 산업집적지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지역의 산업 및 기업 특성을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지역 간 차이 연구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의 특성은 공동학습, 제도적 밀집, 사회적 자본 등 사회공간적 관계의 제도화에 의해 구축되며, 이러한 지역화 과정에 관한 분석은 새로운 이론적 개념들에 바탕을 둔다.

산업집적지 내 연계성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산업집적지 내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것이다. 예로, 이경민·이철우(2007)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거버넌스 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협력적 관계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정협·김형주(2009)는 대기업 주도로 형성된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혁신 거버넌스 체제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사례 지역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업체들 간 수직적, 폐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미흡함을 밝혔다. 지역에 뿌리를 둔 사회적 자본이나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 내 혁신의 창출과 활용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와 이를 작동하는 제도적 조건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성이 제도화되면서 영역적 잠김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혁신이론은 흔히 영역성에 바탕을 둔 ‘신지역주의’라고 비판되기도 한다(권오혁, 2006).

경제지리학에서 지역 연구는 전통적 의미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관한 고찰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이 분야의 지역 연구는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과 지구화 과정을 배경으로 형성된 특정 ‘혁신지구’나 ‘산업집적지’(클러스터)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용어들로 지칭되는 지역에 관한 경제지리학적 연구는 세부적으로 산업집적지의 형성과정 연구, 산업집적지의 외적 및 내적 관계(즉 네트워크 등) 연구, 산업집적지의 내부 혁신 환경(학습과 사회적 자본 등) 연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연구들은 때로 지역의 외적 영향(역외 국가·세계적 자본 또는 외적 정책)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한편 지역의 내생적 요인들의 활성화, 즉 신뢰와 협력

에 바탕을 둔 공동학습과 사회적 자본 등의 제도화(지역화)를 통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여기서 내생적 요인들은 과거 입지론에서처럼 지역의 물리적 특성이나 특정한 입지 요인처럼 어떤 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역동적이고 복잡한 연계성을 전제로 한다.

4. 사회공간적 결절 및 분화로서 지역: 도시(사회)지리학에서 지역연구

도시는 흔히 개념적으로 지역과는 구분되지만, 지리학에서 도시는 지역의 한 특정 유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도시지리학은 포괄적 의미에서 어떤 지역의 도시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예로, 강민정·권상철(2007)는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시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을 한편으로 일반적 측정 지표인 인구 및 지가 변화를 통해 분석하면서, 또한 전통적인 해안 도시로서 제주시가 가지는 자연적 특성과 관광개발에 의해 도시성장이 이루어지는 지역 특수적 상황을 고찰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이용균(2005)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의 장소적 특성을 기반을 둔 지역의 경제적 이점을 장소의 상품화와 마케팅이라는 보편적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보편적인 근대적 도시화 과정에서 특정한 농촌지역이 어떻게 도시지역으로 변화했는가를 고찰한 공윤경(2013)의 연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장소 마케팅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의 소멸과 공간의 균질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문화적, 생태적 실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는 지역으로서 어떤 도시의 변화를 추동하는 보편적 과정은 국가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과정은 국가-지역 관계에 관한 다중 스케일적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예로, 박배균·김동완(2013)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또는 지역의 생산과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과정들과

이 과정들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행위를 다룬 일련의 논문들을 편집했다. 이들은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지역정책을 기술관료적 또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 대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여러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관계로 이해하는 국가공간론을 제시한다.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과정이 개별 지역 또는 도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고찰할 수 있다. 예로, 최재현(1998)은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패러다임을 통한 도시지리학의 연구와 쟁점은 결국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관계로 축약”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의 전형적인 사례로, 김준우·안영진(2006)은 세계화와 도시(개발) 간 관련성이라는 맥락에서 도시개발의 성격과 기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와 이에 바탕을 둔 인천 송도경제자유지구의 개발 배경 및 동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화와 도시 변화 간 관계 형성 과정은 ‘지구지방화’(glocalization)라고 불리며, 개별 도시의 다양한 동인과 특수적 상황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도시 변화에 관한 연구를 요청한다(최병두, 2012a).

도시지리학의 연구주제들은 전통적으로 도시체계론과 도시 내부 공간구조론으로 구분되며, 이에 더하여 도시사회지리학 및 도시정책론이 추가될 수 있다. 도시체계에 관한 전통적 접근은 도시순위규모분포론이나 중심지이론에 근거를 두고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체계 연구는 도시 간 통근·통행 자료 등을 분석하여 도시들 간 연계성을 고찰하거나 나아가 도시(광역)권 설정 또는 네트워크도시론의 적용가능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예로, 손승호(2003)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주거지 교외화와 제조업체를 비롯한 사업체들의 증가로 수도권의 지역구조의 변화, 즉 서울시의 탈도시화 또는 광역화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탈도시화, 즉 서울시의 인구 감소와 주변 지역의 인구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이동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통행 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도시권의 통근권의 변화에 관한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이희연·김홍주(2006), 김광익(2009), 구동

회(2013)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도시권의 통근·통행 패턴에 관한 연구는 도시 간 기능적 관계를 인구 순위 변화에 관한 피상적 추론보다는 실증적인 자료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발전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도시들 간 상호작용 또는 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개별 도시(부분 공간)들 간 관계성에 따라 도시권 지역(전체 공간)이 형성·변화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손승호, 2011). 이러한 접근은 세계도시체계에서 개별 도시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거나(이재하, 2003) 또는 한 국가 내에서 도시들 간 관계로 구성된 도시권 또는 도시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김광익, 2010)에도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예로 “도시권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높은 연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는 것처럼(노승철 외, 2012), 이러한 전체 공간(또는 도시권)과 부분 공간(개별 도시) 간 관계는 여전히 중심지이론에 기반을 둔 기능적 관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기 위한 개념적 틀로 네트워크도시(또는 다중심도시)론이 관심을 끌기도 한다. 네트워크도시란 서로 독립적인 도시들이 교통통신시설의 발달로 기능적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집적경제를 달성한 도시(군) 또는 도시지역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이론은 중심지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트워크도시 개념 또는 이론을 원용한 연구로, 최재현(2002)은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도시체계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지방 도시들 간 고속도로망과 항공망의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시체계 전체를 네트워크도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주영(2003)은 한국 도시체계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이 네트워크도시 메커니즘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도시 체계 여부는 사용 지표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도시론은 전국의 도시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이 아니라 네트워크경제 효과와 더불어 집적경제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비교적 제한된 권역 내 도시체계를 전제로 한다(최병두, 2015a). 이러한 점에서 손정렬(2011)은 수도권을 네트워크도시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 “아직은 네트워

크도시체계보다는 중심지 도시체계에 가까운 유형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짓는다. 반면, 권오혁(2009)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동남권의 “주요 도시들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성장 특징은 네트워크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도시론은 중심지이론에 대한 개념적 대안이며 또한 단일의 거대 세계도시 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도시 간 형태적 연계성 분석에서 나아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예로 노동의 공간적 분업) 및 정책적 상호협력(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 내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는 흔히 도시 내 인구와 산업의 분포나 토지이용에 따른 분화, 특히 소득이나 인종의 차이에 따른 주거지분화에 관한 분석, 그리고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도시 재활성화(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 또한 도시 내부 특정 장소로서 지역에 관한 연구도 최근 도시(사회)지리학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는 도시 내부 등질지역들의 구성에 관한 고찰을 의미한다. 여기서 “등질지역이란 각 부분지역이 가지는 속성이 동질적인 지역들의 집합이며, 도시 내에서의 등질지역은 각 부분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획정된다”(김재행 외, 2009, 45). 이에 관한 연구는 예로 도시의 구역별 자료들을 인자분석하여 같은 요인들로 부하된 구역들을 등질지역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도시 내부의 지역분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도시 내부 공간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가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도시 내 지역차별화 또는 지역불균등에 관한 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 예로, 최은영(2006)은 IMF 경제위기 이후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에 따라 강남지역의 부의 재생산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거주 공간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찰한다.

이와 같이, 어떤 도시가 내적으로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분화가 심화된 경우 이중도시로 불린다. 도시 내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정 지역은 배타적인 고급 소비문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반영한 물리적 경관과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표출로 특징지워진다(심승희·한지은, 2006). 또한 이러한 이중도시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서울의 강남지역은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특정한 지역 담론들에 의해 외부적으로 범주화되는 한편(이영민, 2006), 지역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의해 내부적으로 범주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영민, 2008). 특히 이러한 점에서 이영민(2006, 3)은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공간, 삶의 주체인 인간, 그리고 인간 집단으로서의 사회를 지역의 3가지 구성요소로 보며, 이들 삼자의 순환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역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국의 대도시에서 주거지 분화와 이로 인한 지역적 차별화는 우선 소득 또는 부의 축적과 관련되지만,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인종적 분화도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예로, 박배균·정건화(2004)는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된 사회공간적 요인들을 고찰하면서,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형성된 외국인 커뮤니티의 ‘배제’와 ‘포섭’의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장영진(2006) 역시 이 지역 일대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 및 관련 상업활동의 공간적 집적에 주목했으며, 조현미(2006)는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지 분화는 한 지역 내 등질성뿐만 아니라 혼종성과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용균(2007)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주류문화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혼합과 이로 인한 혼성문화의 탄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의 여러 지역과 리즘처럼 연결된 초국적 네트워크로 구축된 다문화도시의 발달”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이 될 수 있다(박경환, 2009).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혼종적 문화 재형성 과정에서도 이주자는 주변화 담론을 통해 타자화되고, 이렇게 주변화된 이주자들은 엔클레이브 형성 등과 같은 장소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 주체성을 드러내고 이주자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용균,

2013).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재생 정책에 의해 촉진되기도 한다. 과거 도시 재개발은 노후하고 조방적인 토지이용을 집약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 추진되는 도시재생 또는 도새재활성화는 공동화된 도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전경숙(2011)은 과거 도시재개발이 물리적 재생을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최근에는 주민 참여를 통해 문화적 생태적 재생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시의 도시 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나영·안재섭(2014)은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해 연구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적) 도시 재생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을 ‘도시 재활성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예로 김학희(2007)는 강북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삼청동을 사례지역으로 고찰하면서, 이 지역의 상업화된 문화소비공간은 관광자원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이미지와 장소성을 가진 핵심적 자원은 그 진정성을 소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선영·주경식(2008)은 용산 재개발 지구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기존의 저소득 주민은 생활터전을 떠나고 고소득 이주민들의 정착으로 도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문화적 경관과 정체성 변화에 초점을 두는가 또는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대의 변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김걸, 2007).

이러한 점에서 도시재생에서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도시 만들기’ 전략(또는 실천)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로, 이영민(2001)은 인천 구도심지를 사례로, 구도심 지역 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경관의 변화를 ‘장소만들기’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구도심을 다양한 문화가 접촉하는 결절점으로써 입지 특성을 강조하면서, 장소만들기의 주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선미(2007)는 인천의 장소만들기 정책을 재고찰하면서, “인천의 분열하는 이중성을 담은 장소성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립과 개발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

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 자신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교육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영아(2009)는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 참여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만들기 정책과 실천 전략들은 주로 2000년대 중반 정부 정책과 조응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고(이재하, 2007; 김덕현, 2007), 구체적인 사례로 대구 삼덕동에서 시작된 ‘담장허물기’ 운동이 도시지역에서 추진된 마을만들기의 주요 모형으로 고찰되기도 했다(윤옥경, 2008). 다른 한편, 도시발전 전략으로서 이러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최병두, 2006), 이에 합의된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연구도 제시되기도 했다(최병두, 2008).²⁾

도시(사회)지리학에서 지역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 지역이 국가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보편적인 도시화(또는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 등)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고찰은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 간 관계와 더불어 지역-국가-세계라는 다규모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 도시들 간 관계에 관한 도시체계 연구는 도시들 간 실제 형성·변화되고 있는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과 이를 통한 개별 도시(부분 공간)와 도시권(전체 공간 또는 광역권 지역) 간 관계 설정을 고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거를 대체로 중심지이론에 두었으며, 최근에는 네트워크도시론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도시들 간 네트워크(연계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가진다.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관한 연구는 도시 내 등질지역들의 문화에 초점을 두고 공간(주거지)문화 과정을 분석하거나 또는 소규모 지역(장소)들의 변화과정을 탐구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이들의 주거지(문화)에 관한 연구는 도시 내 일부 지역들이 혼종성과 네트워크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에서 지역은 실제적이지만 또한 사회적 구성물로 규정된다. 지역(도시 전체 또는 일부)이 사

회적 구성물이라는 주장은 지역이 물질적 특성과 더불어 내·외적으로 형성된 지역 담론이나 의식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뿐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실천(즉 장소만들기)을 통해 구축된다는 점에 바탕을 둔다.

5. 한국 지리학에서 지역 연구의 주요 과제들

1) 지역의 개념화를 위한 주요 과제

지역의 개념이 비록 진부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학문적 또는 정책적으로도 공간과 관련된 어떤 다른 용어들보다도 지역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그러나 지역의 개념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재구성되며, 현실의 지역 자체도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해 간다. 최근 2000년대 이후 인문지리학의 주요 전공분야들에서 발표된 경험적 연구들은 장소, 경관, 산업지구, 집적지(또는 클러스터), 도시, 결절(지역), 등질지역 등 다양한 용어나 개념으로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 지역에 관한 연구로 수렴될 수 있다. 물론 최근 지리학의 전공별 지역 연구는 과거(지역)지리학에서처럼 폐쇄된 단위 지역에 관한 단순한 서술이나 내부 구성요소들의 종합이 아니라 해당 분야별로 개방적, 다규모적이며, 구성적, 관계적 관점에서 지역에 접근·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의 연구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문지리학의 주요 분야들에서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다른 용어나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지역에 관해 연구하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리학의 전통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은 그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 보편화 과정 속에서 변화한다. 즉 어떤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보편적 과정에 규정되어 변화한다는 점에서 특수성과 보편성 간 관계(또는 다규모성)에 바탕을 두

고 이해된다. 둘째, 지역은 지표면의 일부로서 그곳에 입지한 다양한 물질적 특성들에 의해 규정되는 실체이지만, 또한 그 지역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 의식과 정체성, 담론과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재)형성되는 구성물(또는 고안물)이다. 또한 지역은 구성원들의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구성물이기도 하다. 셋째, 지역은 고립된 단위 지역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즉 지역은 경계 지워진 내적 힘에 의해 규정되는 등질적 단위지역으로서 영역성을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지역 내적 및 외적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변화하는 관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인문지리학의 기본 연구대상으로서 지역을 개념화함에 있어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들은 그 동안 인문지리학의 연구에 반영되어 있었던 주요한 이분법적 논제들, 즉 특수성과 보편성, 실체론과 구성론 그리고 영역론과 관계론 간 이분법을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개념화함에 있어 첫 번째 과제는 지역의 특수성/보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전통적으로 지리학에서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개념화되지만, 오늘날 지역은 개별 지역의 특성을 능가하여 국가적, 세계적으로 작동하는 보편적 과정이나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강민정·권상철, 2007). 그러나 지역 연구에서 특수성과 보편성 간 관계는 ‘함께 고려’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 문제는 부분으로서 단위지역과 복합적 유기체로서 전체 간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지리학의 오래된 방법론적 쟁점과 관련되며(권정화, 2001), 또한 사회이론 일반에서 흔히 논의되었던 미시와 거시, 행위와 구조, 장소와 공간, 지역화와 지구화 등의 이분법과도 관련된다. 이 문제는 또한 지역의 개념에 내재한 특수성과 지역 연구를 위해 원용되는 이론의 보편성(또는 이를 함의하는 공간 개념)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포함한다.

지역은 분명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리학의 역사에서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도래와 더불어 지역 연구가 소홀하게 된 것은 결국 법칙추구적 공간이론이 개별 현상들의 특수성을 기술하는 지역 연구보다 앞선다는 사고에 기인했다. 즉 지역 또는 장소는 보편적 공간 내에서 후차적으로 개별 특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주의적 사고에서 공간 개념은 결국 텅빈 또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간주의적 지리학은 장소에 근거를 둔 국지적 지식이 더 근본적이며 공간은 오히려 물질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지역적 경험(예로 장소감)에 바탕을 둔 국지적 지식은 추론된 보편적 지식에 앞선다는 것이다. 반면 구조주의적 지리학의 입장에서 지역은 전체의 일부이며, 전체를 추동하는 거시적 구조에 의해 그 개별 특성이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다시 특수성과 보편성 간 관계에 관한 논쟁이 유발되고, 이들을 통합한 사회이론이나 철학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을 촉진한 여러 이론들, 즉 구조와 행위 간 변증법을 강조한 구조화 이론이나 이론적 추상화와 경험적 구체화를 연계시킨 실재론 등은 바로 이러한 논쟁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에 바탕을 둔 지역 연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연구들이 지역의 특수성 규명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러한 특수성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과정의 설명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전통적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와는 달리 신지역지리학에서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역 특성이 형성되고 변화하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과정의 설명에 관심을 둔다. 물론 보편적, 구조적 과정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다. 예로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서 보편적인 자본순환 과정(또는 근대화,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관철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보편적 과정은 특수한 현상들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과정의 보편성은 개별 현상이나 사건의 특

수성을 통해 발현(또는 표출)되며, 또한 이러한 발현을 통해 그 과정은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간적 측면에서 규모의 문제와 관련된다. 예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메커니즘 속에서 “지역은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지리적 단위이며, 유·무형의 다차원 스케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홍금수, 2007), 또는 세계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과정은 [세계-]국가-지역 관계에 관한 다중 스케일적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박배균·김동완, 2013).

두 번째 과제는 지역의 실체성/구성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지역을 어떤 객관적 실체 또는 개념적 구성물로 이해할 것인가, 또는 이들의 결합체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역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현실의 실체로서 실제 존재하는가 또는 이는 현상들의 지리적 차이를 분류하는 단순한 편의적 방법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지리학에서 오래된 과제이다(Harvey, 2009, 171). 사회적 구성물로서 지역의 개념은 사실 블라쉬(Vidal de la Blache)의 지리학에까지 소급된다. 그에 의하면, 지역은 지표면에 고정된 경계나 행정구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규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하게 된 생활양식에 기반을 두고 설정된다. 인간주의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지역을 그 자체로서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개념적 구성물로 이해한다. 특히 문화가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이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장소로서 지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형성되며,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예로, 전통적 의미에서 지역적 차이는 거주자들 간 공통문화와 다른 문화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생긴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 짓는 내적 동일성(identity)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지표상에 어떤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간에 의해 고안된 개념, 즉 공간의 일정 부분에 부여된 ‘의미체’로 간주된다.

구성체(의미체 또는 고안물)로서 지역의 개념화

는 지역 문화의 이해에서 종래의 물질적 환경보다 장소와 지역에 대한 의식과 생활양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나아가 지역이나 장소와 관련된 정체성과 기억, 지역 이미지와 장소 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등장시켰다. 예로, 지역 정체성은 언론에 의한 제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곧 지역의 구성과정이라고 주장되거나(이영민, 2008; 임병조, 2009), 또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어떤 지역은 구성원들에 의해 ‘기억할 만한 과거’의 장소로 선택되고, 그 이미지는 지역 담론이 지배하는 상상의 공간, 재현의 공간으로 복원되기도 한다(진중헌·신성희, 2006; 홍금수, 2009). 구성체로서 지역의 개념화는 지역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기 보다 상대적 및 관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다. 예로, 어떤 지역을 중앙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립적 관점에서 다른 지역을 지방이라고 간주할 때도, 지역은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구성체로서 지역은 흔히 어떤 실체인 것처럼 자연화(제도화)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다양한 담론들이 충돌하는 정치의 주제 또는 현상이 되기도 한다(홍금수, 2007).

그러나 구성체로서 지역의 개념은 신지역지리학이 포착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희생시키거나 간과하도록 한다. 예로 지표면의 일정 부분이 가지는 특정 성격이나 사회적 관계에 의해 독특하게 구축된 특정 종류의 응집체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박배균·김동완(2013, 9)은 “지역을 사회적 관계들이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구체화되고 물화되어 구성된 것”으로 정의한다. 즉 지역을 사회적 구성체로 보더라도, 단지 상징적, 담론적 구성물이라기보다 구체적이고 물화된 실체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체와 구성체로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화이트헤드(Whitehead)가 제시한 지역의 개념, 즉 “경계화와 내적 질서화 과정에서 일정 시간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게 된 ‘실체’로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다(Harvey, 2009, 189에서 인용). 그는 이러한 실체를 ‘지속성’(permanence)이라고 명명한다. 지속성은 배타적 방법으로 일정 시간 동안 [지표면의] 일부분의 장소를 점유하고, 이에 의해 그 장소를 일정 시간 동안 규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

소의 형성 과정은 독특한 사회공간적 관계나 과정의 흐름으로부터 지속성을 이끌어 낸다. 예로 금융의 흐름은 새로운 사회공간적 과정을 규정하며 또한 특정 장소(월스트리트, 시카고, 런던 등)에서 독특한 물리적, 제도적 시장을 창출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지역에서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신뢰와 협력, 공동학습과 사회적 자본은 지역 혁신을 유도하는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독특한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배타적 지역성(또는 지역주의)을 가지게 된다. 물론 지속성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영구적이지 않다. 지역은 항상 사회공간적 관계들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고, 해체된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의 영역성/관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지역은 경계를 가진 한정된 영역(예로 국가 영토, 행정구역 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단위체로서 지역의 개념은 정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충성심의 근원으로 이데올로기화(예로, 애국심, 애향심)되기도 한다. 인간주의적 장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상상된 영역적 실체에 대한 충성심의 요구와 같이 영역의 덧에 빠질 위험성을 막아준다. 그러나 실제 영역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내적으로 상호 중첩되고 뒤얽혀 있다. 예로, 한편으로 경관과 기억에 바탕을 두고 진정한 지역 정체성을 추구하는 연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장소관측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국가의 영역성이나 사적 소유의 영역성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영역성은 어떤 가공적 산물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배타적 속성을 가지는 실체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배균(2010)은 장소마케팅 개념이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소마케팅 전략은 복잡한 권력 관계 속에서 장소를 영역화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론이나 클러스터이론도 지역 내·외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지만, 또한 영역성에 기반을 둔 공동학습이나 사회적 자본, 제도적 밀집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라는 비판받기도 한다. ‘관계적 전환’은 이러한 영역성의 한계를 벗어

나기 위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매시(Massey, 1994, 5)는 장소가 흔히 무시간적 정체성과 고정된 영역성을 가지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근본주의적 사고에 도전한다. 그녀에 의하면, 장소로서의 지역의 정체성은 항상 비고정적이고 경합적이며 다중적이다. 어떤 지역의 특수성 또는 정체성은 이를 둘러싼 경계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이 경계 바깥의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특수성은 그 '넘어'에 대한 연계와 상호작용의 혼합의 특수성을 통해 구축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민(Amin, 2002)은 지구화와 관련하여 도시나 지역의 물질적 및 경제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힘은 공간적 관계성이며, 지구적인 것과 지방적 간의 관계를 규모-의존적으로 사고하기보다 연계성의 사고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된 지역은 항상 열려 있고 투과적이며, 이에 따라 형성된 지역의 특수성은 사회적 관계들의 특정한 혼합에 의해 혼종적으로 형성·변화한다. 이러한 관계성으로서의 지역의 개념은 신지역지리학의 개념화나 로컬리티 연구의 확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계론적 관점에 기반을 둔 지역연구는 지역 내 구성원들 간 연계성이나 지역들 간 네트워크에 관심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전환은 인문지리학의 모든 전공분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사문화지리학에서는 개별 지역이 아니라 지역들 간의 상호관계성 또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경향을 만들어낸다(예로 전중환, 2011), 경제지리학에서 지리적 집적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구적 생산체계가 가치사슬의 개념 또는 지역 내 및 지역 간 거버넌스에 바탕을 둔 연구는 기본적으로 관계성으로서 지역의 개념화와 연계된다. 또한 도시지리학에서도 중심지이론이나 도시순위규모론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도시간 통행 패턴(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나 네트워크도시론과 관련된 연구로의 전환도 이러한 관계론적 전환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성에 초점을 둔 지역연구는 현실적으로 개별 지역 및 지역 구성원들이 가지는 영역성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이나 실천 운동에서 지역과 영역성은 분명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다(Jones and MacLeod, 2004; McCann and Ward, 2010).

이와 같이 영역으로서의 지역과 관계로서의 지역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들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지역의 개념화가 요구된다(MacLeod and Jones, 2007).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예로, 이들을 동시에 혼합한 개념, 즉 '다중스케일 네트워크-영역성'이라는 복합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박배균·김동완, 2013). 그러나 지역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개념들을 혼합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현상이나 사물들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분석 또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의 개념 속에 영역성과 관계성이 동시에 포착되도록 하는 개념을 찾아 되는 것이다. 예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개념은 (탈/재)영역화에 내재된 관계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며, 과거 고정되고 한정된 영역으로서 지역의 개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담론으로서 주요한 유의성을 가지지만, 실제 지역에 관한 분석에 응용되기에 한계를 가진다.

또 다른 방법은 지역의 개념에 내재된 영역성과 관계성을 변증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로,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의 역동성을 고정성과 유동성 간 긴장 관계로 이해하고, 하비는 이를 '공간적 고정'(spatial fix)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방법은 지역의 영역성과 관계성의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비가 제시한 3가지 공간의 개념, 즉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계적 공간의 관점에서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비(Harvey, 2009)에 의하면, 지역은 절대적(한정된, 고정된, 명명된), 상대적(수많은 흐름을 통해 상호연계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적(어디에서나 내면화되는 힘, 권력, 영향력 그리고 의미)인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이 3가지 공간 개념의 동시 적용을 통해 분석될 수 있으며, 또한 르페브르가 제시한 3가지 공간 개념, 즉 물질적인 사회적 실천(변경과 경계의 설정), 재현(구획된 지역의 지도화), 그리고 체험된 의미들(주민들의 지역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결합시키는 특정 방법들에 따라 지역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주요 과제

지역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들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문지리학의 전공별 지역 연구는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공분야별 지역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지리학 외부의 다른 학문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고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전공분야별 지역 연구는 지리학 내에서 계통적으로 구분된 연구 주제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전공분야의 연구들과 연계성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을 구성하는 어떤 한 분야(예로 경제지리적 측면)는 다른 분야(예로 정치지리적, 사회문화지리적 측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점에서, 지역 연구는 궁극적으로 여러 측면들을 결합한 종합적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다시 봉착할 수 있다. 인문지리학의 전공분야별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지역은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실체라는 점에서, 지역에 관한 연구는 분야별 연구결과물의 종합으로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에 관한 개념화의 한계와 더불어 현실 세계에서 지역은 복잡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급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지역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종합화를 추구한 지역지리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화로서 지역연구는 여전히 신지역지리학의 이상적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3가지 과제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지역지리학의 경험적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적으로 종합된 지역지리 연구, 지역 간

불균등 관계에 초점을 둔 지역불균등발전 연구, 그리고 내외적 관계 속에서 지역 만들기 실천에 관한 논의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전공분야별 지역 연구 성과물들을 내적으로 종합한 지역지리 연구가 제안될 수 있다. 전통적 지역지리학의 주요 목표는 고정되고 한정된 지역 내 여러 현상이나 사물들 간의 상호관계와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반영한 전체성으로 지역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역은 비고정적이고 비한정적인 것으로 개념화될 뿐만 아니라 고찰하는 현상이나 사물들이 서로 다른 규모(스케일)에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 내 다양한 현상이나 사물들을 하나의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상호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분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리학의 각 분야별 연구 결과물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종합적 지역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이 동일한 규모와 관점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연구를 위해 각 분야별로 원용된 이론들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이나 방법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연구된 결과물만 종합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거대 사회이론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모든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연구에서 지역의 모든 분야들이 하나의 거대 사회이론으로 분석 또는 이해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나 난점은 지역의 종합적 연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일정 시간의 지속성으로 형성되며, 따라 객관적 실체로 경험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실체로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지역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필요하며, 또한 인식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로, 지역은 하비(Harvey, 2009)가 제시한 3가지 공간 개념에 바탕을 두고, 각 측면들과 그들 간 관계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서울이라는 지역을 연구하고자 할 때, 우선 절대적 공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서울의 순수한 물리적 속성, 예로 물리적 위치, 산

업의 입지, 도시 경관의 물리적 형태와 인구 규모, 그리고 교통로선이나 행정구역의 경계 등으로 측정될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을 통해서 경험된다. 이러한 절대적 공간으로서 지역은 예로 행정구역, 지도화 등을 통해 재현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통계자료들로 전산화되고 보존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 공간 속에서 내적 질서화를 규정하고, 다양한 의식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간다. 지역의 절대적 공간 형태는 성벽이나 여타 물리적 표식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그 내적 질서화는 도시 공간의 기능적 분화나 주거지 분화 등을 반영할 것이다.

상대적 실체로 서울은 어떤 종류의 '지속성'의 특성, 즉 지구적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재화와 서비스, 사람, 상품, 화폐, 정보, 문화적 가치 등이 착근하는 장소이다. 서울 시민들은 특정한 입지들에서 항상 '과정 중에 있는' 특정한 입지들에서 물질적, 정신적 만남을 통해 이러한 것들의 흐름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산업연관표, 투입과 산출, 전후방연계, 도시의 신진대사 등을 통해 개념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대적 공간 속에서 세계도시로서 서울을 이해하고, 지구화와 세계도시체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문화이벤트(월드컵, 올림픽 등)를 촉진하기도 한다.

관계성의 관점에서 서울은 사회공간적 과정이나 효과의 물질성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 예로 서울은 역사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적 지위를 가지며, 이는 서울에 위치한 역사적 경관으로서 궁궐의 상징성이나 오늘날 국가 권력기구들의 입지가 보여주는 스펙터클을 통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기업 본사가 집중 입지하고 교통 결절의 허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포드주의적 노동분업의 관계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관계성들은 수도(권)라는 명칭을 통해 개념화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서울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비물질적이고 유동적이지만 이들이 어떤 실천적 행동을 추동할 경우 물질적이며 객관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정치권력의 효율적 거버넌스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종합화를 지향하는 지역연구의 두 번째 과제로,

지역 간 관계로서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지역은 인간의 의식(또는 지역지리학을 포함한 지식)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되고 불연속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지역지리에서는 이러한 단절된 지역(즉 단위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이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표 상의 지역들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성 속에서 개별 지역의 특성은 형성·변화된다. 즉 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생산하고 경로의존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지역들의 발전은 어떤 단절된 조각들의 합으로서 모자이크가 아니라 상호연계성 속에서 작동하는 지역불균등발전의 메커니즘을 통해 추동된다. 이러한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연구와 이론은 지역의 영역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포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단지 관계로만 개념화할 때, 현실의 많은 문제들은 모호해 진다.

지역불균등발전 연구는 개별 지역의 특성을 규정하면서 이들 간의 관계성을 통해 전체 지역들의 변화를 추동한다. 예로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은 지역들 간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의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또한 동시에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공간성을 생산하는 지역불균등발전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Harvey, 2006).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으로 인해 경계의 투과성이 증대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경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만약 한 지역의 모든 것이 완전히 개방적이라면, 결국 지역에 관해 특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한 지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이를 전가하거나 이전시키고자 한다. 하비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성을 고찰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된다. 즉 지역불균등발전은 공간적 조정을 통해 지역적 위기를 공간적으로 끊임 없이 이전시키는 과정이며, 이로 인해 전체 공간의 모순이 심화되게 된다.

그 동안 지역에 관한 연구는 과거 지역지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관계적 관점에서 다른 지역들과 관계를 고려하는 신지역지리학에서도 어떤 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둔 연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역불균등발전 연구는 여러 지역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역들 간의 관계가 개별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예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한 권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른 권역과의 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지역 상호간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별성은 불균등발전과정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차별성은 지역들 간 관계를 통해 작동하는 시장의 화폐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해 역사적으로 재생산된다. 다른 한편, 인간과 비인간 사물들 간의 공간적 관계에 따라 개별 지역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관계적·위상학적 접근이 도입될 수 있다 (박경환, 2014; 최병두, 2015).

지역연구의 세 번째 과제는 대안적 지역 만들기를 위한 실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소나 지역을 만들면서 우리 자신의 의식(정체성)과 생활양식을 만들고, 또한 역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나 지역을 물질적 및 개념적으로 다시 만들어 간다. 우리가 지역을 만든다고 할 때,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특성을 가지는 영역으로서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장소나 지역은 완전히 고정되고 안정된 영역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역을 다시 만들어 간다고 주장할 때, 지역은 우리들의 의식이나 생활양식 자체와는 구분되는 어떤 실체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집단적 정체성과 생활방식들이 구조화된 지역적 특성을 이루게 되면, 사회적 조직의 제도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영역적 형태가 생성된다. 물론 이러한 지역의 영역성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의 실천에 바탕을 둔 장소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이나 지역들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는 이들 간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예로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안적 운동을 통해 새로운 장소나 지역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국적 이주자들의 집적으로 새롭게 생성된 지역은 기존의 지역주민들이나 지

역 전체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며, 특히 세계의 여러 지역들과 연결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을 유지·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사회공간에서 새롭게 형성된 지역은 어떤 특정한 계급적, 인종적 실천이나 생활양식,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지역 내·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변화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지역의 형성은 그 지역이 포함된 더 큰 지역, 즉 국가나 세계에 의해 규정되지만, 또한 이들의 전환을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떻게 유지·발전해나갈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예로, 새롭게 형성된 지역이 지역 내적 구성원들 간 호혜성이나 평등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 공동체적 특성을 가질 것인가, 또는 지역 구성원들 간 이질성을 극대화한 헤테로토피아의 특성을 가질 것인가, 또는 영역화/탈영역화/재영역화 과정 속에서 뺏어나가는 리좀적 관계망으로 이해될 것인가? 대안적 지역 만들기의 과제는 또 다시 영역성/관계성의 개념적 논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안적으로 형성된 지역은 한편으로 자유와 정의, 차이와 상호인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점이지만, 또한 동시에 자본주의의 지구-지방화 과정에 대항으로 끊임없이 뺏겨 나 갈 수 있는 관계망의 결절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지리학의 연구대상은 지역이지만, 지리학에서 지역 연구가 재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전에 기인한다. 그러나 신지역지리학은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지구-지방화의 현실적 과정을 배경으로 지역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하지만, 신지역지리학에 바탕을 두고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의 관점에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불가능한 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일단 제쳐두면, 지리학의 세부 전공분야들에서는 지

역을 지칭하고 접근하기 위해 비록 다른 용어들과 이론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과 관련 이론들이 꾸준히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지리학의 전공분야들에서 지역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동향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문지리학 전공분야들에서 이루어진 지역 연구의 주요 동향과 논제들을 고찰하였다. 역사문화지리학 분야에서 지역 연구는 스케일, 네트워크 등 새로운 개념들을 활용하면서 지역에 관한 새로운 의미들(예로 기억, 정체성, 이미지, 담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장소의 특수성과 외적 영향 간 관계 및 물질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담론적 구성물로서 고찰하고 있다.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지역 연구는 지역을 혁신지구나 산업집적지 등으로 지칭하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학습, 사회적 자본, 제도적 밀집 등과 관련시키면서, 지역 외적 영향과 내적 과정 및 내·외적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있다. 도시(사회)지리학 분야에서 지역 연구는 도시의 변화과정을 특수성과 보편성 간 관계 및 다규모성으로 접근하면서, 도시들 간 기능적 관계(도시체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한편, 도시 내부공간 구조와 개별 지역들의 특성을 실체적 및 담론적 구성물로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시(마을 또는 지역)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문지리학의 주요 전공분야별 지역 연구는 그 자체 내의 이론과 접근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공통점을 가진다. 즉 이들은 지역의 특성을 보편적 과정과 관련시키고, 본질적 실체이지만 또한 담론적 구성물로 이해하며, 영역성보다는 네트워크나 관계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기존의 전통적 지역 연구에서 벗어나 신지역지리학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공분야별 지역 연구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 인문지리학의 연구에 내재되어 있었던 주요한 이분법적 논제들, 즉 특수성과 보편성, 실체론과 구성론, 그리고 영역론과 관계론 간 이분법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앞으로 지역 연구에서 지역의 개념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특수성/보편성, 실체성/구성물, 그리고 영역성/관계성의 이분법을 극복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이러한 이분법적 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시론적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전통적 지역지리학뿐만 아니라 신지역지리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이론으로도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지역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분명 모든 측면들이 복잡하게 결합된 종합체(totality)이며, 단지 이를 인식하기 위해 각 측면 또는 전공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전공분야별 지역 연구가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오히려 각 분야별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며, 또한 종합적 연구를 위한 주요한 연구주제로서 지역 내외적 변증법적(또는 모순적) 관계에 기인한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연구와 대안적 지역 만들기 위한 종합적 실천에 관한 논의들이 제시될 수 있다.

주

- 1) 이전(2014)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지역 연구에서 읍면 및 시군 규모의 지역을 다룬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시도 및 그 이상 규모의 지역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 2) 그 외에도 도시지리학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 제시된 도시 관련 정책들, 예로 노무현정부에서 ‘혁신도시’, 이명박정부에서 ‘저탄소녹색도시’,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과 이에 관한 (공감적 또는 비판적 관점에서)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각 정부에서 제시된 도시 관련 정책들이 지역적으로 어떤 의미나 효과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정부의 도시지역 정책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이 연구들에 관한 논평은 생략한다.

문헌

- 강민정·권상철, 2007, 제주도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 인구나 지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3), 55-67.
- 공윤경, 2013,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와 특성 - 부산 북구 화명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97-110.
- 구동희, 2004, 도시문화 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과 삶의 질, 국토지리학회지, 38(3), 215-226.
- 구동희, 2013, 부산 대도시권의 통근권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8(4), 533-544.
- 구양미, 2002, 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39, 1-48.
- 구양미, 2012,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진화와 역동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3), 283-297.
- 권오혁, 2006, 신지역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국토계획, 41(1), 21-40.
- 권오혁, 2009, 네트워크도시의 이론적 검토와 동남권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3), 277-290.
- 권오혁·윤영삼·최홍봉, 2005, 부산지역 기계금속산업의 네트워크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43-558.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 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 김걸, 2007,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과 설명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37-49.
- 김광선, 2000, 학습지역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동대문시장 지역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13, 94-126.
- 김광익, 2009, 서울대도시권의 통근권 변화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43(4), 571-586.
- 김광익, 2010, 시도간 통행 및 산업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권역 구분, 국토지리학회지, 44(4), 525-536.
- 김덕현, 2007, 중소도시의 지역만들기 방향: 진주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11-17.
- 김숙진, 1999, 장소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고양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4(2), 209-225.
- 김재행·장성민·장영원·남영우, 2009, 수원시 등질 지역의 구조적 변화: 1995~2005,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45-63.
- 김주영, 2003, 네트워크도시이론을 적용한 도시의 효율성 분석, 국토연구, 38, 63-78.
- 김준우·안영진, 2006,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배경과 동인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3), 79-87.
- 김학희, 2007,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삼청동의 부상: 갤러리 호황과 서울시 도심 재활성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127-144.
- 남기범, 2003, 서울 신산업집적지 발전의 두 유형: 동대문시장과 서울벤처벨리의 산업집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화 특성에 대한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45-60.
- 남기범, 2005, 지역산업군집의 혁신환경: 대전 생물벤처산업과 부천 조립금속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1), 1-16.
- 노승철, 심재현, 이희연, 2012,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에 기초한 도시권 설정 방법론 연구, 15(3), 23-43.
- 류주현, 2005, 서울시 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3), 337-350.
- 문남철, 2004,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와 지역산업 실태 및 발전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261-281.
- 박경숙·이철우, 2007, 대구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체계와 경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2), 171-186.
- 박경숙·이철우, 2010,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구문화콘텐츠산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4), 601-622.
- 박경환, 2009, 광주광역시 초국적 다문화주의의 지리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91-108.
-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 - 네트워크이론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57-78.
- 박래현, 2005, 서울시 제화산업의 집적 특성 및 혁신환경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0(6), 653-670.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

- 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
- 박배균·김동완, 2013,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 박배균·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백영기, 2006, 지역경제발전에서의 경쟁, 협력 및 혁신 네트워크: 전북의 경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459-472.
- 박선미, 2007, 인천의 장소 만들기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3), 13-25.
- 백선혜, 2004,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6), 888-906.
- 손승호, 2003, 수도권 지역의 통근통학통행과 지역구조의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69-83.
- 손승호, 2011, 인천시 공간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른 기능지역의 재구조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 87-99.
- 손용택, 2004, 여주의 경제지리 변화: 토지이용, 주민생활 실태, 생활공간의 입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283-296.
- 손정렬, 2011, 새로운 도시성장 모형으로서의 네트워크도시 - 형성과정, 공간구조, 관리 및 성장 전망에 대한 연구 동향, 대한지리학회지, 46(2), 181-196.
- 송희은, 2007,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적 의미의 사회적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19(2), 24-44.
- 신성희, 2013, 비공간적 문화컨텐츠의 지역화와 문화지리 읽기: 전주지역 음악축제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25(3), 64-78.
- 심승희·한지은, 2006, 압구정동·청담동 지역의 소비문화경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61-79.
- 윤옥경, 2008, 도시 지역 마을만들기의 사례와 시사점: 대구 삼덕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466-479.
- 이경민·이철우, 2007,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09-525.
- 이경진, 2011, 지역자원기반산업의 가치사슬 상의 기업활동 네트워크 - 순창 장류산업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6(2), 351-365.
- 이나영·안재섭, 2014,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15-27.
- 이무용, 2009,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유형 분석과 시론적 모델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26-249.
- 이선영·주경식, 2008,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으로서 용산 재개발 지구의 근린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113-123.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 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이영민, 2001,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소의 역사, 지리적 의미의 재구성 - 인천 구도심지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1-13.
- 이영민, 2006, 서울 강남지역의 사회적 구성과 정체성의 정치: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1-14.
- 이영민, 2008, 서울 강남 정체성의 관계적 재구성 과정 연구: 지역 구성원들의 내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1-14.
- 이영아, 2009, 지역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요소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61-272.
- 이용균, 2005,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장소마케팅 추진방안, 8(3), 21-34.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용균, 2013, 이주자의 주변화와 거주공간의 분리 - 주변화된 이주자에 대한 서발턴 관점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87-100.
- 이은숙·정희선·장은미, 2007, 문학공간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방안: 종로지역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1(1), 53-65.
- 이재하, 2003, 세계도시지역론과 그 지역정책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38(4), 572-586.
- 이재하, 2007,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1-10.
- 이전, 2014, 한국 지리학계 논문에서 다루는 지역

- 스케일에 대한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 1-15.
- 이정협, 2008,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전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8.
- 이정협·김형주, 2009,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 육성전략: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대안 모색,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477-483.
- 이종호, 2003, 학습, 혁신 그리고 지역경제발전: 연구동향 및 쟁점, 지리학논구, 23, 315-326.
- 이종호·이철우, 2008, 집적과 클러스터: 개념과 유형 그리고 관련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302-318.
- 이철우, 2011, 대도시 도심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 과정과 존립기반: 대구시 수제화 산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4), 506-523.
- 이철우, 2013, 산업집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지리학 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620-650.
- 이철우·박민정, 2009, 거문도의 근대적 어업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435-448.
- 이철우·이종호, 2000, 창원산업지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뿌리내림, 지리학논구, 20, 84-112.
- 이철우·이종호, 2004, 지방대도시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 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1), 1-27.
- 이철우·이종호·박경숙, 2010, 새로운 지역혁신 모형으로서 트리플 힐릭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335-353.
- 이희연, 2005, 세계화 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 마케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35-53.
- 이희연·김홍주, 2006, 서울대도시권의 통근 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91-111.
-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 홍성신문에 투영된 '내포'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44(1), 89-104.
- 임영훈·박삼옥, 2006, 광주 광(靑)산업 집적지의 형성과 그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273-296.
- 장미화·한주성, 2009, 충북 음성군 접목선인장의 글로벌 상품사슬, 대한지리학회지, 44(1), 56-76.
- 장영진, 2006,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23-539.
- 전중환, 2009,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6), 779-796.
- 전중환, 2011, 근대 이행기 경기만의 포구 네트워크와 지역화 과정, 문화역사지리, 23(1), 95-118.
- 전중환, 2013,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 충무로·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8(3), 433-452.
- 정준호, 2006, 경로의존성과 지역발전경로: 안산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410-430.
- 정치영, 2007, 문화·역사지리학에서 지역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30(3), 63-89.
- 정희선, 2004, 종교공간의 장소성과 사회적 의미의 관계: 명동성당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1), 97-110.
- 정희선, 2009, 경관 재구조화에 의한 장소의 경제적 가치 재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동대문운동장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2), 161-175.
- 정희선, 2012, 근대산업시설에 투영된 장소성: 당인리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의 이해, 문화역사지리, 24(2), 123-137.
- 조성욱, 2006, 도시주변 면단위 행정구역의 지역 변화 - 전라북도 조촌면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59-71.
- 조일환, 2013, 지역 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 정체성의 혼란 - 화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697-711.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진중헌, 2012, 산업유산과 지역발전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연구 - 태백시 철암지역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6(3), 287-299.
- 진중헌·신성희, 2006, 도시 정체성 형성을 위해 '과거'의 선택적 복원 과정: 인천시의 '만국공원' (현 자유공원) 복원론을 사례로, 지리학연구, 40(2), 241-255.
- 최병두, 2002, 현대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 253-278.
- 최병두, 2005, 지역문화환경 발굴을 통한 지리연

- 구와 지역발전 방법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1-18.
- 최병두, 2006,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방안, 국토지리학회지, 40(4), 513-528.
- 최병두, 2008,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604-626.
- 최병두, 2012a,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 최병두, 2012b,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42, 92-135.
- 최병두, 2014,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1) 발달배경,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357-378.
- 최병두, 2015a,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영남권 지역의 발전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20.
- 최병두, 2015b,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3), 125-172.
- 최은영, 2006, 차별화된 부의 재생산 공간, 강남의 형성 - 아파트 가격의 시계열 변화(1989~2004)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33-45.
- 최재현, 1998, 세계화 시대의 도시지리 연구를 위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쟁점과 연구동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 31-46.
- 최재현, 2002, 1990년대 한국도시체계의 차원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5(2), 33-49.
- 한주성, 2001, 로컬리티로서 대덕연구단지의 노동시장 특성과 공간적 네트워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2), 35-54.
- 홍금수, 2004, 안성지방 지역정체성의 분열과 그 원인, 문화역사지리, 16(1), 287-313.
- 홍금수, 2007, 근대형 지역구조로의 이행과 지역패권의 선점을 위한 도시 담론의 동원, 91-124.
-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홍금수·김수진·김태형, 2012, 도시 공간 속의 촌락: 중계본동 '104마을' 서민경관의 퇴락, 문화역사지리, 24(1), 50-75.
- 황주성, 2004, 대덕 IT 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359-384.
- Amin, A., 2004, Regions unbound: towards a new politics of place, *Geografiska Annaler* 86B, 33-44.
- Harvey, D., 2006, *Spaces of Global Capitalism: Towards A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Verso, London.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Geographies of Freedom*,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 Jones, M. and MacLeod, G., 2004, Regional spaces, spaces of regionalism: territory, insurgent politics and English ques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9, 433-452.
- MacLeod, G. and Jones, M., 2007, Territorial, scalar, networked, connected: in what sense a 'regional world'? *Regional Studies*, 41(9), 1177-1191.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McCann, E. and Ward, K., 2010, Relationality/territoriality: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cities in the world, *Geoforum*, 41, 175-184.
- 교신 : 최병두(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 Correspondence : Choi, Byung-Doo(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bdchoi@daegu.ac.kr, phone: 053-850-4155)
- (접수: 2016.01.22, 수정: 2016.02.20, 채택: 2016.02.25)